

영암 F1 올 대회 무산... 소송전 비화되나

국제자동차연맹, 최종 제의 내년에도 못 치를 가능성 높아 계약 불이행 위약금 공방 예고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올해 F1(포뮬러원) 일정에서 한국(영암)을 최종적으로 제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F1이 열리지 않게 됐다. 2016년 대회 개최도 불투명한 가운데 F1조직위원회와 포뮬러원 매니저먼트(FOM)가 지난 2012년 체결한 계약 전반의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상호 의견이 엇갈려 소송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도는 7일 "FOM 일정에는 여전히 추후 확정(TBC·To Be Confirmed) 단서로 한국이 포함돼 있으나 FIA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정에서는 제외됐으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안 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국 BBC 등 외신은 F1 그랑프리 상업적 권리를 보유한 버니 에클스톤 FOM 회장의 요청으로 전남도가 올해 일정에 포함됐으나 결국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FIA 대변인의 설명을 이날 전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년 개최권료의 절반 수준인 2000만달러 이상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F1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적자 누적을 개회 불가 사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FOM 측은 F1 조직위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며, 2012년 6월 1일 체결한 레이싱 프로모션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1 조직위 관계자는 "FOM 측과 협상을 진행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위약금액까지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서로 의견 차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F1 조직위는 위약금을 내지 않는 다른 방안을 FOM에 제시하고 있으며, FOM은 계약서상 위약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등 최근까지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 관계자는 "F1 조직위가 민간기업도 아니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줄 수 없는 실정"이라며 "계약 전반이 불평등하게 작성돼 있으며 여기서 언급된 위약금 규모는 FOM 측에서도 너무하다고 여기고 있어 협상을 계속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약금 규모는 1회 개최권료인 4370만 달러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2016년까지 의무적으로 F1 대회를 개최하기로 계약했으며 계약상 마지막해인 내년에도 영암 대신 아르젠 바이전에서 F1 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에도 개최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FIA이사회는 지난해 말 개최지 중 유일하게 F1한국대회에 최종 승인을 부여하는 "TBC(To Be Confirmed)" 단서를 붙여 2015년 5월3일 제5라운드 개최지로 명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 서품식 7일 오후 광주 영주동성당에서 열린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부제 서품식에서 김희중 대주교가 신임 사제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있다. 이날 박상현(마리오), 이상훈(파트리치오) 등 5명이 사제 서품을 받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지원·이인영·문재인 압축

새정치 당대표 후보 컷오프 ... 주승용 최고위원 예비경선 통과



박지원 후보 이인영 후보 문재인 후보 주승용 후보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당권 후보가 박지원, 이인영, 문재인 후보(기호순)의 '3자 대결'로 압축됐다.

새정치연합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8 전국대의원대회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해 본선에 나설 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4면〉

모두 5명이 출마한 대표 예비 경선에서 박지원, 이인영, 문재인 후보가 무난하게 통과한데 비해 박주선, 조정태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9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는 전병헌, 이목희, 주승용, 유승희, 정청래, 박우섭, 문병호, 오영식(이상 기호순) 후보 등 8명이 통과했고 노영관 후보가 탈락했다.

이날 예비 경선은 비상대책위원회인 임시 지도부와 고문단,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시도의회 의장 등 378명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대표 선거에 1인1표, 최고위원 선거에 1인3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에는 326명의 중앙위원이 참석했

으며, 각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수는 전대 경선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본선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차기 지도부의 이념 좌표와 대외 노선, 공천개혁 등 혁신안, 계파주의 청산, 대권 '당권분리'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후보 간의 세 대결이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당권 경쟁에서 이인영 후보의 완주 여부와 비문 진영의 결집 여부가 최대 변수라는 분석이다. 예선을 통과한 후보자들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1일까지 17개 도시에서 열리는 시도당 대의원대회에 참석, 합동연설회를 갖는다.

17개 시도위원장을 뽑는 시도당대회 및 합동연설회는 10일 제주, 경남을 시작으로 11일 울산 부산, 17일 충남 대전 세종, 18일 전남 광주, 20일 전북, 22일 충북, 24일 강원, 25일 대구 경북, 31일 서울 인천, 2월1일 경기 순으로 열린다.

새정치연합은 내달 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전대를 열고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약금 규모는 FOM 측에서도 너무하다고 여기고 있어 협상을 계속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약금 규모는 1회 개최권료인 4370만 달러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자동차 밸리' 현대차 투자 촉각

윤시장, 청와대·현대차 방문

윤장현 광주시장이 민선 6기 핵심정책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밸리 육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윤 시장은 7일 오전 청와대와 현대차 그룹을 잇따라 방문해 자동차산업밸리 조성 및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 사업에 대한 논의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안중범 경제수석과 면담을 한 뒤 현대차 정성인 부회장 등 현대차 그룹 임원을 면담했다.

윤 시장은 이날 안 수석과의 면담을 통해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사업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윤 시장은 현대차 그룹이 전남 사상 최대 규모의 81조 투자계획을 내놓은 만큼 광주에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현대차 그룹의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모두 81조원을 투자해 완성차 품질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혀 광주의 역점사업인 자동차산업밸리 육성과 맞물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주 이전한 한전 '지역협력사업' 강화

한국전력공사가 나주 분사 이전을 계기로 대대적인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한다.

7일 한전에 따르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로 분사 이전과 함께 광주·전남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및 산학연 R&D,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발전 사업에도 수 천억원 대의 투자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4면〉

이와함께 한전은 전력설비의 안정성과 에너지신산업 분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2조 원 늘린 5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한전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한전은 올해 안전·재난 대비 및 설비고장 예방을 위한 투자 및 비용 예산을 전년 대비 6000억원가량 증가한 2조1000억원

으로 늘렸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의 주축이 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도 1조원을 투자된다. 한전은 정부 정책에 맞춰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장치(ESS), 마이크로그리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선도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임동욱기자xian@

경제, 14·15면에서 만나세요



겨울철 별미 여행 ▶18면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주름줄기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린다

피부 탄성이 무너지면 잔주름이 깊고 넓게 뻗어 나가는 주름줄기 현상이 시작됩니다. 깊어지는 주름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 인삼 성분만을 캡슐화한 진세나스피어™가 피부 본연의 탄성을 강화시켜 힘있게 치우르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더욱 강력한 인티에이징 효과로, 주름을 이기는 피부의 힘을 경험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Sulwhasoo

·유명백화점이나 약국에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ulwhasoo.kr · 고객센터: 080-020-5454 (수신시간: 월~금 9:00~18:00)